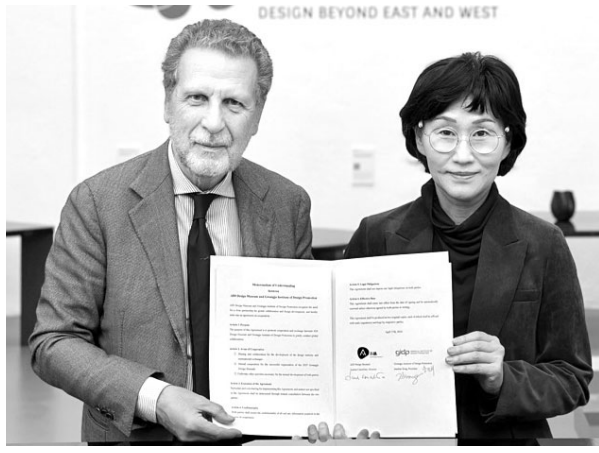


광주디자인진흥원, ADI 뮤지엄과 교류협약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위크' 기간 중인 지난 17일(현지시간) 오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ADI(이탈리아산업디자인협회) 뮤지엄과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에 앞서 디자인진흥원은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전시 'DBEW EXHIBITION 2024'가 지난 16일 오후 밀라노 ADI뮤지엄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영식 밀라노총영사, 안드레아 칸셀라토 ADI디자인뮤지엄 관장,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 최경란 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5월 5일까지 20일간의 전시에 들어갔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 전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와 함께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광



주디자인진흥원, ADI뮤지엄,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전시작품은 지난해 열린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 가운데 초청받은 '아세안웨이'를 비롯해 옷칠을 소재로 한국과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대, 광주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우수상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학과장 노선균) 심폐소생술 경연팀 '팀HR(Heart Rescuer)'이 지난 15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3회 광주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대학·일반부 우수상을 차지했다. <사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주최로 열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총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팀당 8분간의 경연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정확도와 AED(자동제세동기) 사용 능력을 평가했다. 소방행정학과 김용철 교수와 원석준(4학년), 박태준(3학년), 이주혁·최정운 학생(1학년)으로 구성된 '팀HR'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광주에서 붕괴된 건물 잔해로 인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무대를 선보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용렬씨 27일 '산티아고 스킨' 강의



'그래서, 산티아고' 저자 제2기 산티아고 스킨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광주기독교대학교 평생교육원 203호에서 열린다. 강사는 공직에서 퇴직하신 후 산티아고 길을 걷고 책 '그래서, 산티아고'를 펴낸 박용렬(사진)씨다.

5월에 걸쳐 진행했던 1기 강의와 달리는 이번에는 하루 4시간 집중 강의를 통해 산티아고 순례에 나서려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는 산티아고에 대하여(개요, 역사, 목적), 준비하기(잘 걷고, 잘 먹기, 잘 자려면), 배낭꾸러기와 무게 줄이기 등 필수적인 내용, 질의 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홀로 34일간 915km를 걸은 데 이어 2023년에는 아내와 함께 다시 산티아고길 800km를 걸었으며 길 위에서 얻은 삶의 보물같은 지혜를 나누기 위해 산티아고 스킨을 운영하고 있다. 박 씨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찾고, 나 역시 일상에 한 번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라고 권한다"며 "이 길의 짐과 무게가 되기 위해 산티아고 스킨을 열었다"고 말했다. 수강료 2만원. 문의 010-9630-700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굿네이버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과 협약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과 지역 아동들의 건강 및 행복한 성장을 위한 자원 연계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기금 및 물품 전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능 자원 이용, 아동권리보호 최우선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자원 및 대상 모집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아동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자원 연계 협약을 통해 '아동행복 대한민국'을 함께 꿈꾸며, 지역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장님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



은 "굿네이버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고있는 마을에서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박상철 호남대 총장, 우즈베크 시르다리아 포럼 참석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이 지난 20일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를 방문해 '경제정책과 시르다리아 경제특구의 기업지원 정책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호남대학교 LINC3.0 가족회사인 (주)화인특장 최정석 대표와 손완이 국제교류처장, 최영화 입학관리처장 등이 참여했으며 광산구 3개 기업의 기술 제품 발표가 진행됐다. 비즈니스포럼 행사 이후 호도시협약 체결식에서 박상철 총장은 사르다리아 야크마린 마흐부다예프 주지사로부터 경제, 문화, 교육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호남대학교는 현재 34명의 산학협력중점교



수가 LINC3.0사업, RIS사업, AI융합인재양성사업 등 다양한 국고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진출을 위한 산학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이은재 석사과정생

교육부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생 이은재(사진) 학생이 '2024년도 교육부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 석사과정생의 석사 학위 논문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은재 학생의 '선택적 레이저 용융 적층 공정으로 제작된 TiAl6V4의 마이크로나노 구조 기반 표면개질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은재 학생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돼 대학원 생활에 더욱 동기부여가 됐고, 지도해주신 이정원 교수님께 항상 감사하다"며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동네 한 바퀴(재) 5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꾸러기 식사교실(재)	30 살맛나는 오늘
11	05 동행(재)	0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글로벌 건강 비법 최강백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 인식 개선 특집 운명처럼 핸드볼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집 금슬이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인연(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분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어린이 동물티비(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5 MBC 뉴스	00 개리와 친구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트로트 클라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생방송 오늘 저녁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먹살 한 번 잡힐시다(재)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10 월화드라마 먹살 한 번 잡힐시다	00 100분토론	20 틈만 나면
11	30 영상앨범 산(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스모킹 건(재)	30 수사반장 1958(재)	
12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TV예술무대 스페셜	20 열린예술무대 뒤란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만국군문록	16:5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10 한글용사 아이야(재)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야	12:00 EBS 뉴스 12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7:15 빅 블루	12:10 귀한신물	19:20 고향만국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마침내! 쿠바-카리브해, 남만의 여정>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5:15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08:3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5:55 블랙스	<전지적 외국인 시점 2부>
08:50 도레미 프렌즈	16:10 당동맹 유치원(재)	속 vs 소시지, 앤디의 선택
09:00 뒤죽박죽섬의 빅포패밀리 쇼츠	16:30 페퍼 피그	21:55 EBS 다큐프라임
09:05 엄마 까투리	16:40 마사와 곰	22:50 건축탐구 - 집
09:20 자이언트 팽TV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음3월 15일 丁巳)

<p>36년생 노고를 가장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세이나라. 48년생 이익의 창출이 매우 크다. 오류가 있다면 즉시 수정하라. 60년생 아주 자연스러운 테크닉이 필요하다. 72년생 경우에 맞지 않으면 분배할 소지가 많다. 84년생 손조로움을 더하고 있으니 가속도를 낼 때다. 96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41, 82</p>	<p>42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보이리라. 54년생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66년생 욕심대로 밀 일은 아니니 절대로 집착할 필요는 없다. 78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적절하게 쓰게 된다. 90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02년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다. 행운의 숫자 : 19, 91</p>
<p>37년생 함께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49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61년생 실패 성 있는 개성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반등하게 될 것이니 차분하게 지켜봐도 괜찮다. 85년생 손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97년생 기초를 이루는 것은 유지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75</p>	<p>43년생 이리저리 잘 관리해본다면 훨씬 나은 방법을 찾게 된다. 55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67년생 하자는 없으니 마음 놓고 대하라. 79년생 오해불망하며, 염원해 왔던 것을 궁극적으로 얻으리라. 91년생 일에도 시기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03년생 사라지고 있으니 잘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 38, 66</p>
<p>38년생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참는 것이 덕이지니 부드럽게 화합하라. 50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62년생 적당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74년생 자신과 무관한 제3자의 일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86년생 과잉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98년생 비우고 나면 바로 채워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67</p>	<p>44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56년생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친다. 68년생 손리에 벗어난다면 불행은 자초하리라. 80년생 허울 좋은 명분보다는 알찬 실적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 92년생 까다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04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행운의 숫자 : 39, 78</p>
<p>39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기교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51년생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63년생 어지간해서는 이루기가 어려우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75년생 쉽게 오해할 수도 있는 환경이다. 87년생 해묵은 것을 버리더라도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99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행운의 숫자 : 12, 94</p>	<p>45년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57년생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69년생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81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대처 방안도 명확해진다. 93년생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05년생 전문가를 만나야 속시원한 해결을 본다. 행운의 숫자 : 36, 92</p>
<p>40년생 당해 문제의 여건이 충족되어 가는 국면이로다. 52년생 의심스러운 점은 꼭 문의해 봐야 한다. 64년생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 76년생 판이한 사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88년생 노심초사하며 우려해 왔던 사건이 실제로 터지겠다. 00년생 실익이 없다면 가급적 빨리 선회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0, 88</p>	<p>46년생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58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거의 임박했다. 70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물어간다. 82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니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94년생 탄력적이라면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06년생 한번 만에 끝낼 일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3, 59</p>
<p>41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3년생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65년생 타당성 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니라. 77년생 재물과 은인이 사방에 보이는 형상이로다. 89년생 안정성에 관한 평가 작업을 해야 할 시기이다. 01년생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1, 53</p>	<p>35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47년생 애초의 예상대로라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59년생 잠깐의 요동이 있을 수나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마라. 71년생 애태우며 기다리던 보람이 있을 것이다. 83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다. 95년생 기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행운의 숫자 : 33, 90</p>